

“끝까지의 사랑”

마태복음 15장 21-28절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던 한 이방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자.

첫째,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사건의 발단은 한 이방여인에게 흉악하게 귀신을 들린 딸이 있었다. 이 딸이 낫기를 원하였던 이 여인은 주님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주님이 이 여인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가셔서 유대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야 하실 텐데 거꾸로 위로 이방 땅으로 올라 가셨다는 것이다. 왕복 약120km 이상의 긴 여정이다. 왜 이렇게 긴 여행을 하셨을까? 이 여인의 딸을 고치시기 위함 이심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이 여인의 사건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다는 것이 증명한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신 것이다. 세상에는 무수한 신들이 있지만 그들은 찾아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 꿈쩍을 못하는 우상일 뿐이다. (시 115:5-7)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주님이시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뤄주시는 분이시다.

귀신들린 이 딸의 어머니 어떤 심정이었겠나? 지금 본문을 보면 개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고, 주위의 많은 사람의 시끄럽다는 따가운 눈총이 있어도 상관없이 없었다. 그냥 ‘주여 살려주십시오’

부모마음이다. 우리의 자녀가 39도의 열이 올라가도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부모 아닌가! 살릴 수만 있다면 콩팥 이식, 간 이식 못할 것이 없는 것이 부모이다. 예수님이 이 간절한 부모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는가! 속히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묵묵부답이시기도 하셨다. 이것은 소원을 이뤄주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함을 기다리신 것이다. 그리고서 마지막절에는 소원대로 되어질 것을 선포하셨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원을 응답으로 이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응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에 더 가까이 왔다는 의미이다.

셋째,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시다.

주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아시고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하셨다. 그리고는 소원을 이뤄 주셨다. 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것은 이방여인이지만 상관치 않으시고 이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다가 싸우고 헤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다. 끝까지의 사랑이시다. 십자가에서도 한 강도를 구원시키시고 돌아가셨다.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옆의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올까? 대답을 할 힘이랴도 있을까? 그러나 그 한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 이것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일 아닐까? 하나님은 그 끝까지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한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며 기다리신 그 사랑, 끝까지의 사랑, 이렇게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들도 끝까지의 사랑을 몸에 품고 이웃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나눔의 시간

1.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느껴진 것이나 아니면 경험이 있는가?
2. 기도하여도 응답이 너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 포기하는가 아니면 더욱 간절히 간구하는가?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3.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무엇을 하기로 결단해야 할까?